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감독·각본·국제영화상 등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영종도=김민수 기자

광주 서점가 '봉준호 신드롬' 확산

오스카 4관왕 '기생충' 배우들 귀국... '성원에 감사'
시상식 이후 '스토리보드북' 판매 급증... 재고 소진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달성과 함께 지역 서점가에서 일명 '봉준호 신드롬'이 거세게 번지는 가운데 '기생충' 주역들이 12일 금의환향했다.

배우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장혜진, 최우식, 박소담, 박명훈과 제작사 비르손 E&A 박신애 대표, 봉준호 감독과 공동으로 각본을 쓴 한진원 작가, 이하준 미술감독, 양진모 편집감독 등은 이날 오전 5시 15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봉 감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 언론 인터뷰 등 남은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 주에 돌아올 예정이다.

한국 영화계는 물론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최초로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만큼 '기생충' 배우들이 입국하는 현장은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으며 다른 입국 승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배우들을 지켜봤다.

배우들은 긴 시간의 비행에도 지치지

않은 듯 환한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었다.

배우 대표로 나선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은 다른 일정 때문에 같이 귀국하지 못했는데 저희끼리라도 인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좋은 한국 영화를 통해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봉 감독과 함께 작품상 트로피를 거머쥔 박신애 대표는 "이른 아침에 나와주시고, 환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감사한 만큼 송구스럽다. 따로 날짜를 잡고 뵙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생충'은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에 올랐다.

특히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았고, 64년만에 역대 세 번째로

칸 영화제 최고상을 받은 뒤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 때문에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에 대한 팬덤도 갈수록 확대되면서 북미지역의 티켓 예매는 전주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상영관이 오히려 늘어나는 역주행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기생충'과 관련된 유일한 책인 '기생충 각본집&스토리보드북'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동안 오프라인 서점과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서 간헐적으로 판매되던 '기생충 각본집&스토리보드북'은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면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인터넷서점 '예스24'의 경우 12일 현재 예약 주문만 가능한 상태로 오는 26일 이후 발송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돼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역시 아카데미 시상식 직전 정상적으로 판매했으나 출판사 사정으로 24일 이후 발송된다는 안내문이 고지됐다.

지역 서점가에도 '기생충 각본집&스토리보드북'을 구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발걸음이 부쩍 늘었다.

광주시내 한 대형서점의 경우 이미 재고가 모두 소진돼 총판과 도매 등을 통해 재입고를 요청한 상태다.

김경석 기자·영종도=김민수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전방위 대응 나선다

市, '코로나-19' 대응책 마련
소상공인·중소기업 재정 지원
매점매석 단속·고지징수 유예

광주시(시장 이용섭·사진)는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10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기관·단체 현장 간담회 때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포함됐다.

주요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대응·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업 지원 △유통관리 △소비촉진 △기타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 확대 지원한다. 올해 지원할 특례보증은 432억원으로 지난해 340억원에 비해 92억원이 늘었다. 업체당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1년간 2.5%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실질적 대출금리는 0.5% 내외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4월 15일 시행했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올해는 두 달 앞당겨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한다. 월 할 인규모는 5.9%다.

기업지원 분야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특례보증 대상을 기존 자동차부품기업에서 피해기업으로 확대해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300억원을 보증하게 된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등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 2300억원을 지원

하고, 수출진흥기금 30억원 조기 융자 지원한다.

더불어 경제고용진흥원에 '코로나-19' 지원제도 종합 안내 원스톱(One Stop) 센터를 운영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제 유관기관 등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각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업체 피해사례 접수 및 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정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조사일 기준 최근 5일간 재고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에 해당하는 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해 6개월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 고지·징수·채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의 상반기 신속 집행,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예산 확대 시행 예정,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 소관 기금 적극 투입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앞서 광주시는 외식업체 지원을 위해 12일부터 18일까지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했으며, 취소 또는 축소되는 학교 졸업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 및 판매상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사랑의 날(매주 수요일) 꽃 사주기, 생일 등 기념일에 꽃 선물하기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중앙정부와 광주시, 유관기관이 다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이겨내자"며 "이번 지역경제 종합대책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범 기자

남도장터 설 매출 23억 원 '대박'

전남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지난 설 특판전을 통해 1월 한 달 동안 2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설 특판전에서 농림회사법인 이룸팜의 사과·배 선물세트 3억원, 호정식품(주)의 한과 선물세트 2억 3천만원, 청자골 한우리 영농조합법인의 한우 선물세트 2억 원이 판매됐으며, 상위 30개 업체가 1천만 원 이상 고

른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 매출 1억원보다 무려 23배나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성과는 우체국쇼핑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20개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유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2천 500곳에 3회 이상 판촉·홍보로 '남도장터'의 인지도를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허성은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 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